

PI첨단소재, 2020년 배당성향 50% 지급 결정

- ▶ 일관된 배당성향 정책 유지, 주주 환원 정책 발표로 배당주 가치 부각
- ▶ 올해 3분기 최대 분기 실적 경신, 전년 대비 이익 증가로 인한 배당금 증가 예상

<2020-11-26>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제조회사 PI첨단소재(178920)가 금년 배당성향을 개별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공시했다.** 일관된 배당성향을 유지하며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한다는 회사 정책 기조다. 특히, 회사는 올해 3분기 회사의 최대 분기실적을 경신함으로써, 3분기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순이익 규모가 약 110%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배당 금액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금번 배당성향 50% 결정은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익 규모가 커지는 만큼 주주들의 이익 역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관된 배당성향 정책을 유지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라고 밝혔다.

PI첨단소재는 하반기 신규 비즈니스 및 PI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OLED 소형 모바일 및 중대형 TV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신호 연결 역할을 하는 CoF(Chip on Film)용 필름이 최종 승인을 끝내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일본 수입산이 독점하고 있는 CoF를 국산제품으로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EV용도는 EV 배터리 절연용 PI필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EV 모터 권선용 바니쉬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5G용 저유전 PI필름(MPI) 시장은 업계 최저 수준의 저유전손실율(Low Df, Dissipation Factor)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양산 판매중인 6GHz 용 외에도 28GHz용까지 개발하여 향후 5G통신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I첨단소재는 종합첨단소재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IT디바이스용 소재부터 고속성장하고 있는 5G, 전기차용,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용 등 다양한 특수용도소재까지 다양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문의: PI첨단소재 PR담당자 (031-436-8635)**